

# 빛과 빛

## 희망의 빛, 승리의 신심

세계 2022년이 밝아왔다. 올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에 대한 부름 꿈과 희망을 가진다. 세계의 꿈과 희망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격랑풍습에도 미쳐있다. 우리 선조들은 생활에 전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과 희망이 생취되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화목을 축원하는 말들을 하였다. 하다면 세계 2022년은 북과 남의 인민들에게 어떻게 밝아왔는가.



공화국의 2022년은 인민들에게 희망의 빛,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밝아왔다. 새해의 첫 아침,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흥분과 격정속에 접하였다.

한 레일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투쟁강령을 받아안았습니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올해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정한 전원회의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 《전원회의는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실천방도들도 뚜렷이 명시하였습니다. 지금 대담한 개혁과 활력있는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 체육인들의 기세는 대단히 높습니다.》 ... 들으면 들수록 또다시 승리할 한해를 가슴벅차게 안아보게 하는 인민들의 목소리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새해는 언제나 희망과 신심속에 밝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넘친 축복이 담긴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희망과 락관에 넘쳤던 새해들.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대한 보도를 들으며 신심에 넘쳐 맞이하였던 2020년. 또 2021년은 어떠하였던가.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친필서한을 받아안으며 격정속에 맞이했던 새해였다. 이렇듯 공화국인민들처럼 령도자의 축복을 받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인민들이 또 어데 있겠는가.

# 북녘의 빛, 무궁은 환절

《올해는 (빛) 아닌 (빛) 찾아오길...》 이는 새해 남조선의 어느 한 잡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광화문 시민연립마당에 모인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한숨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것이었다. 새해에 희망의 빛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북에 살든 남에 살든 누구나 같은 법이다. 지난해 남조선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폐쇄질대로 폐쇄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20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영업손실로 인한 빚때문에 고된하다가 극단적선택을 했다고 한다. 희망의 빛이 아닌 죽음의 빔만 남았다는 그들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2022년 정초, 이 시각에도 무겁게 들려온다. 자영업자들만이 아니다. 2021년 남조선주민 1인당 채무부

담액은 1만 7 440US\$로서 2020년에 비해 8.3%나 더 늘어났으며 시장에서는 소비물가가 11년만에 최초로 늘어났다고 한다. 2021년 1월부터 12월중순까지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13.11%나 뛰어들라 2020년 상승률(6.43%)의 2배를 넘었다. 2월에도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3월과 4월에 다시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세와 월세까지 급격히 늘어나 주민들의 목숨이 날이 갈수록 커졌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살기는 점점 힘들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여기에 사회양극화현상까지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날에 대한 희망대신 증오심만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속에 맞이한 새해 2022년이다. 그러나 새해가 어찌 기쁠수 있고 즐거울수 있으랴. 본사기자 김춘경



# 내가 알게 된 세상동이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소학교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학생 2명을 죽이고 학생 1명과 학부모 1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이 범죄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행인들에 의해 제압된 살인범은 29살의 청년실업자였다. 청년은 학비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구하려 여기저기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직업을 얻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년은 끝내 자기를 살인과 죽임의 낭떠러지로 내몬 사회에 앙심을 품고 10살 밖에 안되는 무고한 아이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이 사건으로 그 나라의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직업도 돈도 없는 청년에 의해 뜻밖의 불행이 당한 아이들. 무엇이든, 누구든, 누가 이런 생각을 품고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2018년 가을, 조국에서 대표적인 수재양성지로 손꼽히는 금성제1중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우리 일행을 마중한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교사실에 들어서니 북도의 벽마다 게시되어있는 직판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수학, 물리, 영어, 화학, 생물을 비롯하여

교재내용에 해당하는 공식들과 법칙들, 상식들이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품어들어 만든 직판물들로 하여 교사의 모든 벽과 홀들이 지식홀, 상식홀을 이루고있었다. 특히 내가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과목별로 전자칠판, 밀개식칠판 등 각이한 칠판을 다양하게 리용하는 것이었다. 소학반 학생들의 교실에도 들어가보았다. 보조탁이 달린 이등식교탁과 학생들의 키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식책걸상, 학용품보관장, 교편물장 등 모든것이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어느 교실에 들러보아도 다 기능화, 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에서 실현되어있었고 어느 강좌실을 돌아보아도 교육의 질적수준을 담보하는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었다. 교실로부터 복도와 홀들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공간이 학생들의 학습에 실지로 도움이 될수 있게 잘 꾸려져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땅결면은도와 바람속도, 바람방향, 대기온도 등을 측정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리용할수 있게 되어있는 지리학습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70여종의 나무들이 짝 들어찬 교재원과 여러 공식들과 외국어단어들을 익힐수 있게 꾸려진 야외학습터, 교사와 다름바없이 지식홀, 상식홀이 꾸려져있는 밝고 아담한 기숙사... 발전하는 조국의 교육현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었다. 우리 일행중 길에서 살고있는 동포가 교장에게 물었다. 《조국에 이런 수재교육을 주는 학교들이 얼마나 됩니까?》 《1984년 수재양성을 위한 평양제1중학교(당시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개교한 이 후 각 도들에 제1중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학들도 수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가 세워져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선발됩니까?》 교장은 이 물음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라의 곳곳에서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수재형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우리 나라의 수재교육체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새세대들을 제때에 찾아내어 누구나 차별없이 키우며 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그 인민적정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인민적인 교육시책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의 눈앞에는 어여쁘장하게 생긴 귀여운 3명의 처녀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도 몸매도 나이도 똑같은 금성제1중학교의 새생동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알게 된것은 몇년전 TV화면에서였다. 그날 저녁 TV로는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이 방영되었다. 공연제목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지금도 감탄하게 되는것은 아이들의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아직 유치원생터를 벗지 못한 소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의 기량은 높았다. 즐겁게 TV를 시청하던 나의 눈에 산뜻한 교복차림을 한 세명의 처녀애들이 안겨왔다. 척 보기에 머머모양이나 얼굴형이 같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아블싸, 그들이 새생동이가 아닌가. 새생동포 김영란

# 수필 새해의 환눈에 없는 생각

어들이 깃들어 한송이두송이 내리기 시작한 눈은 어느새 온빛세계의 황홀경을 펼쳐놓았다. 새해에 내리는 첫눈이어서인지 나의 마음속에 류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지난 한해의 가지가지 사연을 전해주는듯싶었다. 잊을수 없는 2021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새해의 첫아침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총심 일련단심 변함없으리라는 맹세를 담고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격정을 금치 못 하였던 공화국인민들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나갈것임을 선언 하시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는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악성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세계를 휩쓰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지 않았던가.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을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로써 격정을 금치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며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 중대조치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이 여러되었다. 돌이켜보면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관이 응축되어있는 이러한 중대조치는 이번만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교육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 후대사랑으로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

는 그이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있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범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이라고 하시며 애육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들을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장공장과 가방공장들도 현대적으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는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 교복을 비롯한 첫 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올해의 첫아침에는 혁명화원 원아들과 전국의 어린이들, 소학교 학생들에게 은정 어린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의 후대들을 위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성의 손길에 떠받들려 이 땅에서는 세인을 감동시키는 미래사랑의 전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있으며 그것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어버이님 높이 모신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들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